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기뻐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복된 한해를 보내길 축복하며 기도하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의 만남 속에서 새해를 향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나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혹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이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특정 지역에만 갇히지 않으십니다. 넓은 하늘, 깊은 바다, 자그마한 풀꽃 한 송이, 고운 모래 한 알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있습니다.

### 다름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련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름을 품고 있기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각기 사는 지역과 시기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만났기에 잘 통할 것 같지만, 서로의 다름을 극명히 발견하게 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다름이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 속에서 손을 내밀어 찾지만 해도 그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며, 한 가족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소외될 이, 누구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각각의 존재들이 자신만의 빛깔을 충만히 드러내는 자리, 자유로이 자신만의 몸짓으로 움직일 수 있는 깊고 넓은 환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족임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을 새로이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설 명절,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품으시는 수많은 존재들을 만나봅시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 하늘을 나는 새들과 동네 뒷산에 뿌리내린 나무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세상 모든 존재를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안읍시다. 다름이 만나는 곳에서 두려움에 돌아서기보다 용기를 내 조금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고 깊은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로 부름 ----- 고린도후서 5:17 -----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찬 송 ----- 478장 참 아름다워라 ----- 다 같이

여는 기도 ----- 말 은 이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 당신을 찾길 원합니다.  
집에서든, 들판에서든 성전에서든, 도로 위에서든  
어디서든 당신을 찾길 원합니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던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맛보게 하소서.  
억압 당할 때 보호해주시고,  
굶주릴 때 먹여주시며,  
부족할 것이 있을 때 채워주소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 사도행전 17:27-28 ----- 말 은 이

말씀 선포 -----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 말 은 이

파송찬양 ----- 사랑의 주님이 ----- 다 같이

주님의 기도 ----- 다 같이

##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 (1)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 (2)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 (3)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 성경 봉독 <사도행전 17:27-28> (새번역)

- 27)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  
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 28)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 파송찬양 <사랑의 주님이>



### \* 우리 함께 지켜요!

1. 명절인사는 모든 가족들에게 평등하게 합니다.
2. 결혼, 취직, 출산 등 곤란한 질문은 No!
3. 집안일 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4. 명절의 따듯함을 고난 받는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